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현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공인석/김명숙 김영애 김종진/한안나 김춘화 류영철/김정숙 맹지혜 박은숙 박종삼 송부현/김영진 안금자 유은자 이기자 이상현 장명원/김육자 전병구/이인숙 조규영/윤혜란 조옥자 지옥분 재희춘/황영옥 최상걸/이미향 황경연/정선영 황국록/이경주 황상근 / 24명

☞ **선교현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김명숙 김영진 김춘화 김희규 맹지혜 박복래 박순자 박종삼/이영원 안금자 유은자 윤영준/박진숙 윤조춘 이기자 이순애 이춘휘 이형교 이희환/오희정 장명원 장운주 조옥자 최성현/윤정자 최정규/김미영 루디아아전도/ 24명

☞ **감사현금** 기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래 김두산 김병율/이영숙 김정자 김지훈 김현규/서재희 박경자 박부용/최귀남 박순웅/이승애 박순자 박희선 방현옥 석애자 염영분 유은자 이춘휘 이형욱 장성자 장은주 전병구/이인숙 채명업 최기춘/정계숙 최순혁 허봉선 황영옥 청년부 / 26명

☞ **일천번제현금**
이진우 김명숙 김미희 김민성 김수현 김정훈 김준구 김준현 김지훈 김형숙 김춘화 김혜란 민옥희 박순자 박정숙 박희영 배병찬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이경자 이기자 이설아 이소은 이승애 이옥남 이인숙 정하람 전병구 정옥순 정혜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황영옥 김민혁 무 영 앙일석 이노을 정승현 / 42명

☞ 월정현금

전합회 / 1명

주간 성경연구

33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사도행전 28장 11절 ~ 22절		
월요일	사도행전 28장 23절 ~ 31절	목요일	역대상 7장 1절 ~ 9장 34절
화요일	역대상 1장 1절 ~ 4장 43절	금요일	역대상 9장 35절 ~ 10장 14절
수요일	역대상 5장 1절 ~ 6장 81절	토요일	역대상 11장 1절 ~ 9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춘 강영성 김병율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옥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대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전도사	이필래	
	준전임전도사	김두산	
	교육전도사	이송이 문수경	
찬양대	지휘자	할렐루야	김한나 혼산 나 : 김안나 시온 · 애멘 : 최원지 앤 젤 : 이난수
		오르간	심혜윤
	반주자	피아노	김민지 강민주 김미희 이연정 공희라 정희연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리스트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국 : 김정숙 수리남 : 안석렬 이성옥 미국 : 김다니엘 미국 : 최옥희 이 집 트 : 김진숙 A X 국 : 김해월 A X 국 : 이분옥 조망비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국 : 박영성 정세미 맥시코 : 김홍기 태국 :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활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18. 08. 12. 주일 예배 설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설교자 이진우 목사
이사야 4장 2~6절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예상과 측량을 뛰어넘는 분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다양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감격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 소망의 하나님
 - 본문 2절에서 “그 날에 여호와와 짝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짝”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소망입니다. 짝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짝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의 최초 단계를 의미하고,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더군다나 짝이 라는 단어가 “여호와의 짝”이라는 말로 표현될 때에는 더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짝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로잡혀 가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와 짝”은 절망 대신 소망을 줍니다. 이사야가 표현한 것과 같이, 여호와와 짝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시온에 남아 있는 자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참 소망이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듯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 본문 4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말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영이시자, 소멸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더러움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거룩하고 깨끗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러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멸하고자 하시는 것은 백성이 아니라, 그 백성의 더러움입니다. 더러움을 소멸하셔서 백성을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여기 “소멸하는 영”이란 “우베루하르 바에르”로서 그 뜻은 “없애다, 태우다.”라는 뜻으로 결국 당신의 백성의 허물과 문제와 죄의 모든 것들을 없애시고 거룩한 불로 태우사 다시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죄를 지은 사람들의 멸망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도 120년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속에서도, 수많은 성경의 사건과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은 그 백성의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도에게 있어 연단을 통한 회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단의 과정 중에 있다면 고통스럽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결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우리에게 참된 거룩함과 정결이 남을 것입니다.
-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 하나님은 성도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십니다. 본문 5~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사막의 작열하는 태양빛과 열로부터 백성을 지키시고, 밤이면 불기둥의 화염으로 추운 사막의 한기를 이겨 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초막과 같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시고, 비바람을 피해 숨는 곳이 되어 주십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숨겨 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원수의 위협, 사탄의 유혹 등,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고, 시편 34편 8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듯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는데도, 고집을 부리며 외약별 아래에 서 있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면서도 방황하고 실수를 거듭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깊이 있게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성도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알기 원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삶 속에서 경험하여 나날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SINCE 1975

No. 44 - 33

2018. 08. 19.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담임목사	이진우
Senior Pastor	Yee,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에배

[1부] 오전 7시	사회: 박 권 제 장 로
[2부] 오전 9시 30분(로렘나무)	인도: 이 진 우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묵 도	할렐루야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다 같 이
찬 양	찬송가 86(통86)장
(Praise)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통 성 기 도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대 표 기 도	[1부] 최 상 결 집 사
(Prayer)	[3부] 박 권 제 장 로
성 경 봉 독	[1.3부] 민수기 6장 22~27절(구약p.204)
(Scripture)	[2부] 야고보서 1장 2~8절(신약p.371)
찬 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Anthem)	[3부] 그래도(신상우)
설 교	[1.3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축복기도
(Sermon)	[2부] 준비되어 있는 지혜
헌 금 봉 헌	[1,2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Offering)	[3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배
봉 헌 기 도	세 영 집 사
(Offering Prayer)	[색 스 폰 연 주]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384(통434)장
(Praise)	다 같 이
축 도	니의 갈 길 다 가도록
(Benediction)	
에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장학위원회 헌신예배 및 2018년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

오후 3시	사회:(장학위원장)
묵 도	
성 시	시편 33편 1~2절
간 구	
헌 신 결 의	[서기]
찬 양	찬송가 320(통 350)장
기 도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성 경 봉 독	마가복음 4장 30~32절(신약 p.59)
찬 양	[부서기]
설 교	겨자씨 한 알 키우기
예 물 봉 헌	기도:(회계) 민옥희 권사
특 송	
장학금전달식	
광 고	
찬 양	찬송가 330(통 370)장
축 도	어둔 밤 쉬 되리니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찬 양	
기 도	[다음주:박순자권사]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8장 5~13절(신약p.11)
설 교	주를 향한 믿음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아유치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9:30 로렘나무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9:30 로렘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토요일 오후 6:00 로렘나무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도특공대	목요일 오후 2:00 제1교육관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